

‘08년 2월 25일(월) 16:00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유전개발팀 이승우 팀장, 윤제민 사무관 (2110-5526)

우즈베크, 중앙아 첫번째 패키지형 동반진출 성공

- 수르길 가스전가스화학단지 건설사업 합작투자회사 설립 협정서 체결 -
- 대우인터내셔널 35, 36 육상광구 탐사계약 체결 -

-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Karimov(까리모프) 우즈베크스탄 대통령의 공식 訪韓을 계기로
 - 2여간 양국간에 논의된 수르길 대형 가스전(LNG 환산시 우리나라 약 3.7년치 소비량) 개발과 석유화학 건설사업을 연계한 패키지형 동반진출사업 추진 합의 및 신규유망 탐사광구 2개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 양국은 2.25(월) 롯데호텔에서 2건의 유전개발 사업추진 계약을 체결하였음
 - ①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한국건설산업이 참여하고 있는 수르길 가스전-가스화학단지 건설 연계사업의 합작투자회사 설립 협정서와
 - ② 대우인터내셔널의 35, 36 육상광구 탐사계약 서명식이 개최되었음
- 이에 따라 신정부의 對우즈베크스탄 에너지·자원 협력사업 추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1. 수르길 가스전가스화학단지 연계사업 합작투자회사 설립 협정서 체결

▶ 중앙아시아 지역의 첫 번째 패키지형 동반진출

- 2.25일 Karimo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김영주 산업자원부장관 임석하에 한국가스공사 등의 한국컨소시엄과 Uzbekneftegaz(우즈베크 국영석유사)간 합작투자회사 설립 협정서가 체결되었음
 - 동 사업은 '06.3월 까리모프 대통령 방한시, 한국가스공사-Uzbekneftegaz사간 양해각서를 체결한 대표적인 한-우즈베크 에너지'자원분야 협력사업임
 - 약 9천6백만톤(LNG 환산시)의 매장량이 확인된 수르길 가스전의 개발/생산 및 가스화학플랜트 건설/운업을 통합한 사업으로 투자비는 총 18억불 규모로 예상됨
- 한-우즈베크 합작투자회사는 한국컨소시엄사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우즈베크 현지에 설립되며, 한국컨소시엄과 Uzbekneftegaz사간 지분은 각 50%씩 보유하게 됨
 - * 한국컨소시엄 : 가스공사 17.5%, 롯데대산유화 17.5%, LG상사 5%, STX에너지 5%, SK가스 5%
 - '12년 가스화학플랜트의 상업운영시 천연가스 연간 약 28억입방미터(LNG 환산시 2백만톤)와 HDPE 연간 36만톤, PP 연간 8만톤을 생산하며, 생산된 제품은 우즈베크 국내 및 서유럽, CIS지역, 중국 등으로 판매될 계획임
- 동 사업은 자원개발사업과 석유화학 인프라 건설을 연계하여 참여함으로써 중앙아시아에서 최초로 '한국형 동반진출 프로젝트' 진출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미얀마, 동티모르 등에 이어 우즈베크를 거점으로 한 중앙아시아 에너지'자원개발사업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함
 - 또한 롯데대산유화를 비롯한 한국컨소시엄 기업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한국기업의 상'하류 부문의 뛰어난 기술력과 노하우를 중앙아시아에서 입증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임

2. 대우인터내셔널 35, 36 육상광구 탐사계약 체결

▶ 우즈베크내 유망지역 탐사광구 2개 확보 성공

- 2.25일 Azimov(아지모프) 우즈베키스탄 제1부총리겸 재무부 장관과 고정식 산자부 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 임석하에 대우인터내셔널과 Uzbekneftegaz(우즈베크 국영석유사)간 우즈베크 35, 36 육상광구 탐사계약이 체결되었음
 - 동 육상광구는 최근 러시아의 Gazprom 및 중국 CNOOC 등의 탐사 활동이 매우 활발히 진행 중인 우스트리히트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 금번 탐사계약을 통해 대우인터내셔널은 동 2개 광구의 지분 100%를 확보하였으며, 광구 운영권자로 향후 5년간 탐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임
- 이번 탐사계약 체결은 우즈베크 유전개발사업에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진출한 첫 번째 사업으로
 - 우즈베크도 유전개발분야에서 민간기업의 활동이 활발한 카자흐스탄과 같이 향후 민간기업차원의 적극적인 진출이 기대됨
- 대우인터내셔널은 이로써 아제르바이잔 이남광구 참여에 이어 중앙 아시아 지역 에너지'자원 개발사업 확대의 기반을 마련함

참고1

한-우즈벡 교역 및 투자 현황

1. 교역현황

□ 연도별 교역추이

(단위 : 백만불, %)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수 출	금액	346	188	247	359	493	649
	증가율	50	△45.5	31.1	45.3	37.3	31.7
수 입	금액	137	97	79	77	29	40
	증가율	31.5	△29.2	△18.4	△2.5	△62.5	39.1
교역량	금액	483	285	326	436	522	689
	증가율	44.6	△40.9	14.4	33.7	19.7	31.9
무역수지		209	92	168	282	464	609

* 자료 : 무역협회 KOTIS

□ 품목별 교역동향

-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원동기 및 펌프 등 기계류이고 주요수입품은 우라늄, 기타농산물 등으로 산업간 교역이 주를 이룸

(단위 : 백만불, %)

순위	'06년 對우즈벡 수출			'06년 對우즈벡 수입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합계	649	31.7	합계	40	39.1
1	자동차부품	406	42.1	우라늄	17	-
2	원동기및펌프	89	18.4	기타농산물	12	△29.0
3	자동차	32	16.8	천연섬유사	8	6.0
4	합성수지	20	9.7	기호식품	1	21.7
5	편직물	15	79.4	면직물	1	△52.7

* 자료 : 무역협회 KOTIS(MTI 3단위)

2. 투자현황

□ 연도별 투자추이

- '06년말 현재 한국의 對우즈벡 투자는 93건에 6.45억 달러(신고기준), 우즈벡의 對한국 투자는 112건, 6.01백만 달러(신고기준)임

(단위: 건,백만불)

연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누 계
한국→	3	5	6	3	11	16	93
우즈벡	74.9	0.8	5.7	0.9	7.4	39.1	645
우즈벡	2	2	7	22	39	39	112
→ 한국	0.08	0.08	0.3	1.2	2.1	2.2	6.01

* 자료 : 수출입은행, 산업자원부

□ 주요 투자 기업

- 현재 우즈벡에 진출한 주요 기업은 대우, 동서기연 등이고 제조업 부문이 많음

투자자명	현지법인명	업종	품목
대우	대우 유니텔	무선통신업	이동통신
(주)동서기연	우즈동양	제조업	자동차부품
세명금속공업	우즈 세명	제조업	F/TANK 등
대림 H&L 주식회사	우즈 로토	기타	복권
-	대우포장	제조업	카톤박스

* 자료: 코트라

- 우즈벡의 주요 대한 투자기업은 알리셔나보이코리아마케팅, 우즈벡차이 하나 등이 있고 주로 유통부문에 진출해 있음

현지법인명	업종	품목
알리셔나보이코리아마케팅C O.	도·소매(유통)	상품종합도매업
우즈벡차이하나	음식·숙박	서양음식점업
유피아항운(주)	운수·창고(물류)	외항화물운송업
이데알	도·소매(유통)	기타상품중개업
샤크조다 (서울)	도·소매(유통)	상품종합도매업

참고2

한-우즈벡 자원협력 현황

- '05.3. : 산자부/한국석유공사/중기협 유전개발조사단 현지방문
 - 아랄해광구 개발사업을 위한 국제컨소시엄에 한국측 참여 협의
- '05.5. : 노무현 대통령 우즈벡 국민방문
 - 한-우즈벡 자원협력 MOU(산자부-‘우’ 제1부총리) 체결을 통해 양국간 에너지·자원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양국 석유공사간 우즈벡내 지역에 대한 유전탐사·개발에 공동 노력키로 합의하는 내용을 포함한 유전개발협력 MOU 체결
 - 광물자원협력 MOU를 체결(광진공-‘우’ 지질위원회)함으로써 금, 우라늄 등 전략 광종의 공급 다변화 기반 마련
- '06.3.3 : 제1차 한-우즈벡 자원협력위원회(서울)
 - 제1차 한-우즈벡 자원협력위를 통해 신규 유·가스전 및 광산 공동개발 프로젝트 발굴 및 협력방안 논의
- '06.3.29 : 우즈벡 카리모프(Karimov) 대통령 방한
 - 4개의 신규 유·가스전에 대한 협력MOU를 체결하고, 공동 개발기로 합의
 - * 나망간/추스트 광구(한국석유공사-‘우’ 국영석유사) 공동탐사협력MOU
 - 수르길 가스전(한국가스공사-‘우’ 국영석유사) 공동개발협력 MOU
 - 우준쿠이 가스전(한국가스공사-‘우’ 국영석유사) 공동개발협력 MOU
 - 광물자원분야에서도 자파드노 금광탐사광구 계약서, 잔투아르 우라늄광산 공동조사 협력MOU 등을 체결함
- '06.8. : 산자부 장관 우즈벡 방문
 - 우리나라 최초의 對 우즈벡 자원개발 진출사업인 아랄해 가스전 공동개발계약을 체결
- '07.2. : 가니예프(Ganiyev) 대외경제무역투자부 장관 방한
 - 수르길 가스전 개발·가스화학단지 건설 연계사업 관련 사업설명회 개최

참고3

수르길 가스전-가스화학단지 건설 연계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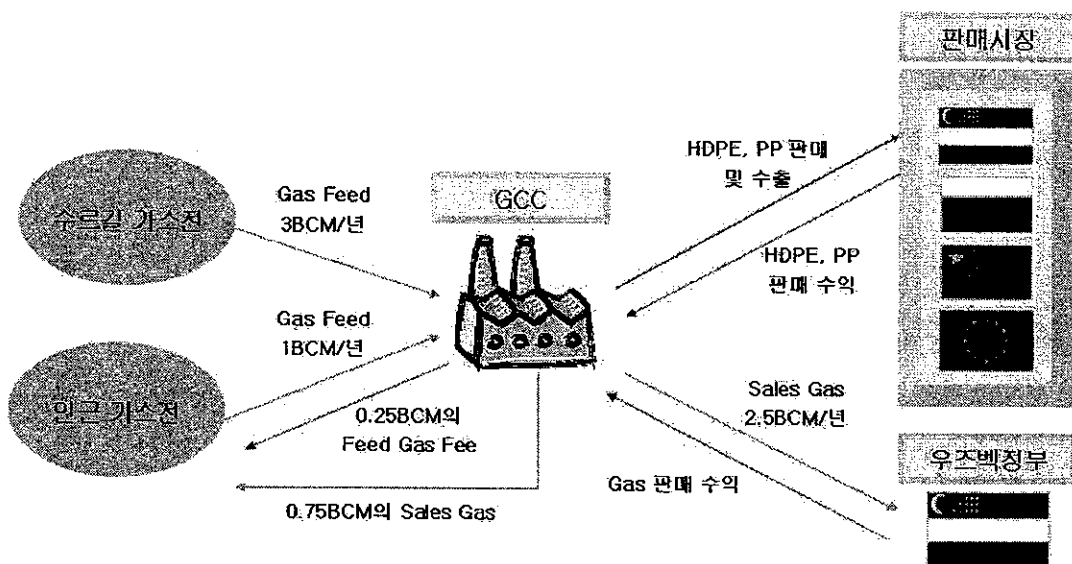
아랄해 인근에 위치한 수르길 가스전의 공동 개발, 생산 및 판매를 포함하여, 가스화학 플랜트 건설/운영을 통한 화학 생산물 판매 합작사업

□ 광구 개요

- 추정매장량 : 가스 4tcf (약 84백만톤)
- 지분 구성 : UNG(우즈벡 국영석유사) 100% 소유 (한국측 50%매입 예정)
 - * 한국컨소시엄 : 가스공사, 롯데대산유화, SK가스, LG상사, STX에너지
- 추정사업비 : 18.3억불(가스전 개발 3.8억불+화학플랜트 14.5억불)
- 제품 생산 : HDPE 36만톤/년, PP 8.3만톤/년, Gas 2.8BCM/년

□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 '06.03 정상회담시 한국가스공사-Uzbekneftegaz간 공동개발 협력약정 체결
- ~'07.2 가스화학단지 건설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 ~'07.8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우즈벡 내각 승인 완료
- '07.10 한국컨소시엄 구성
- '08.2 합작투자회사 협정서 체결
- '08년말 최종 투자결정 및 '09년 건설사업 착수, '12년 말 상업운전 예정



참고4

35, 36 육상광구 탐사사업(대우인터내셔널)

□ 광구 개요

- 광 구 명 : Koskudyk(35), Ashibulak(36) 육상광구
- 위 치 : 우즈베크 서북부 우스트리히트(Ustyurt) 지역
- * 동 지역은 수르길 가스전이 위치한 지역으로 최근 러시아의 Gazprom, Lukoil 및 중국의 CNOOC의 탐사활동이 매우 활발히 진행 중

□ 추진 현황

- '06.11. : UNG측에 8개 광구 탐사사업 진출의사 표명
- '07.상반기 : 35, 36광구 참여 대상광구 선정
- '07. 9. : 우즈베크지질연구소와 연구용역계약 체결

□ 향후 계획

- '08.2.25 : 대우인터내셔널-UNG사간 탐사본계약 체결

